

## 강화군, 전국 최고 휴식형 관광힐링 명소! 화개정원 탄생!



강화군 교동도에 전국 최고의 휴식형 관광힐링 시설인 ‘화개정원’이 개장한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빼어난 조망을 자랑하는 ‘화개정원’이 내달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임시 개원한다고 밝혔다. 임시개원 기간동안 입장료는 무료이며,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내년 5월 정식 운영한다.

5색 테마 화개정원은 역사·문화·평화·추억·치유를 테마로 석가원, 물과 폭포, 암석원 등이 조성됐다. 소나무정원, 장미원, 수국원 등에는 70,000여 본의 수목과 관목류, 초화류를 식재해 계절을 느끼며 공원 같은 정원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민들이 직접 가능한 수목으로 정원을 꾸며 그 의미를 더한다.

화개정원은 교동도 화개산 213,251㎡에 사업비 382억 원을 투입하는 강화군 최대 역점사업이다. 주요 시설로 ▲5색 테마 화개정원 ▲스카이워크형 전망대 ▲모노레일(민자) 등이 들어서며, 온 가족이 정원같은 공원에서 편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화개산 정상의 스카이워크형 전망대는 강화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비상을 기본 컨셉으로 군조인 저어새의 긴 부리와 눈을 형상화했다. 전망대에서는 한강하구 및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과 북녘 땅에

흐르는 예성강을 따라 펼쳐진 연백평야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모노레일을 통해 정원입구에서 전망대까지 2km를 궤도 열차로 편하게 이동하며, 화개정원의 빼어난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 다만, 전망대는 올해 완공예정므로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

군은 관람객들의 흥미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스탬프 투어길, 사진 뽀내기, 유배생활체험 등 12가지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연산군 유배지 인근에는 활쏘기, 널뛰기, 투호 등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정원을 탐방하며 조형물들을 모바일로 인증하는 스탬프 투어와 화개정원 전경, 풍경사진 등을 게시판에 올리는 이벤트도 운영한다.

한편, 평화의 섬 교동도는 대룡시장을 중심으로 교동향교, 교동읍성, 박두성 생가, 연산군 유배지, 화개사, 난정저수지, 고구저수지 등의 다양한 테마 관광자원이 고루 산재되어 있으며, 전국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

유천호 군수는 “화개정원 임시개원으로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화개정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농·어업인과 상생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선순환의 관광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기자

# 강화군, 전국 최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강화군을 위한 미래인재를 육성



유천호 군수 어린이집 방문(강화군 사진제공)



강화군 제2장학관 전경(강화군 사진제공)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전국 최고의 교육하기 좋은 도시 육성에 나섰다.

군은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 실현을 위한 시책으로 ▲제3·4 장학관 신설 ▲장학기금 조성확대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확대지원 ▲만3~5세 외국어 특별활동 지원 등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 제3·4 장학관 신설

군은 지역 출신 모든 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서울과 인천에 제3·4 장학관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강화장학관은 지난 2014년 서울시 영등포구에 72실 규모의 제1장학관을 개관한데 이어 지난 2019년에는 서울시 중구에 58실 규모의 제2장학관을 개관했다. 현재 수도권 소재 대학생 187명을 수용해 지역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입사희망자에 비해 시설이 부족해 추첨을 통해 입사생을 선발해 왔다.

## ■ 장학기금 조성 확대

군은 2024년까지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을 100억 원에서 150억 원을 확대해 장학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학생 선발인원은 매년 140명(고등학생 70명, 대학생 70명)에서 170명(고등학생 70명, 대학생 100명)으로 확대되고, 장학금은 고등

학생 50만 원, 대학생 3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해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장학기금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80억 원을 조성했으며, 고등학생 및 대학생 140 명이 2억4천5백만 원의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 ■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확대 지원

군은 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생 등록금을 확대해 지원한다.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조례'를 지난달 26일 제정 공포했다. 지금까지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등록금을 중위소득 200% 이하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했다. 지원금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질 납부액에 대해 학기별 최대 100만 원이다.

## ■ 만3~5세 외국어 특별활동 지원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특별활동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령별 매일 1시간의 전담 강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은 역할놀이, 만들기 등 놀이 같은 활동을 통해 생활외국어 표현과 어휘를 접하고, 친구와 놀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확장하는 외국어 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은 올해에만 교육경비보조금 25억 원을 전액 군비로 편성해,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육성하고 있다. ▲초등·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8억 6천 8백만 원) ▲자율형 공립학교 및 행복배움학교 지정 고등학교 지원(2억 5천만 원) ▲창의체험 활동 지원(2억 1천 7백만 원) ▲명문 우수 고교 육성(3억 1천 4백만 원) ▲진로·진학 프로그램(8천만 원) ▲강화섬 외국어 교실 거점학교 육성사업 등으로 교육 격차 없는 보편적 교육 복지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별도 사업비로 ▲초등 등·하교 안심알림 서비스(1억 8천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3천 6백만 원) ▲무상급식(9억 4백만 원) 등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유천호 군수는 "우수 지역 인재 육성하는 일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내일이 더 기대되는 강화군을 위해 미래 인재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 강화특집 KBS 열린음악회, 평화로 하나 된 교동도



교동도 화개정원에 열기를 가득채운 강화특집 열린음악회

## ‘교동도 화개정원, 6천여 명의 관객 열기로 가득 채워’



열린음악회에서 인사말을 하시는 유천호 강화군수

지난 18일 KBS 열린음악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교동도 화개정원에서 개최된 이날 음악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동 실향민과 주민을 비롯해 강화군민, 관광객 등 6천여 명의 관람객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요즘,

북한과 인접해 있는 ‘평화의 섬 교동도’에서 온 군민과 평화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김호중을 비롯한 김경호 밴드, 빅마마 등 국내 최고의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은 화개정원에서의 늦가을 밤 정취를 고취시켰다.

특히 ‘KBS 열린음악회’가 열린 교동 화개정원은 북한 연백평야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올해 완공 예정이다. 현재 운행 중인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어르신들도 아름다운 화개정원을 지나 정상까지 쉽게 오를 수 있어 온 국민이 북한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평화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번 열린음악회가 교동 화개정원에서 개최된 것은 그 어느 음악회보다 뜻깊다”며 “평화의 섬 교동도에서 우리 모두가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1**

- 최벽하 기자

# 강화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비상대비업무 수행연습



비상대비업무 향상교육(사진제공 안전총괄과)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4일 비상대비 업무 수행연습을 실시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투기 무력시위 등으로 경색되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무와 역할을 숙달했다.

이번 연습은 지난 8월 을지연습에서 제외했던 신규공무원을 주축으로 110명이 참여해 비상시 임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맡은 역할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과 전임강사가 국가 비상대비 업무에 대한 기본 교육을 진행하고, 이어 사전처리 연습을 5시간 넘게 진행

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유관 기관 간 협조 체계 강화 등 각종 상황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실전과 같은 조치 연습을 했다.

한편, 군은 오는 11월 충무계획 작성 실무교육을 추진해 소속 공무원들의 유사시 대처능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비상 상황 시 군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유사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 강화군,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 도입 유천호 군수 “전국에서 가장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3년도 상반기 중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의 영석 분석 기술로 위험을 자동 감지하는 기술이다. CCTV를 통해 사건·사고 등의 원인을 찾는 도구로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 차량 등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위험요소를 감지해 관제요원에게 우선 표출한다. 적은 인력으로 관제 기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 효율성이 좋다.

현재, 강화군 통합관제센터는 1,400대가 넘는 CCTV를 전문 관제사 7명이 3개조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해내고 있다. 실제 절도현장을 발견하고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경찰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범인 검거에 기여했으며, 실종자 신고 접수 후 인근 지역을 정밀 관제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실종자를 찾아 2차 피해를 막았다.

하지만 취약지역에 대한 실시간 관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에만 CCTV 160대를 신규 설치했다. 이로 인해 관제사가 감시해야 하는 CCTV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 및 수사자료 제공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군은 우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범죄 취약 지역 등에 600여대에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더 똑똑해진



강화군 통합관제센터(사진제공 강화군청)

통합관제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건·사고 발생 시 빠르게 초동 대처해 안전 도우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이 구축해 범죄뿐 아니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전국에서 가장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모두가 행복한 강화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 강화군의회, “작은학교 살리기사랑방 간담회” 개최



의회사무과\_사랑방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가 지난 24일 양사초등학교에서 관내 50명 이하 초중학교장 및 관련 단체 회원과 함께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을 위한 사랑방간담회를 개최했다.

사랑방간담회는 강화 지역의 학생 수 50명 미만 작은 학교의 학생 유입방안과 지역별 학교 특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사초등학교장(최형목) 및 연구 두레 회원들은

강화·인천시 교육청 및 군청, 시청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특화프로그램의 예산 지원·작은 학교 지역 마을 공부방 마련 및 초·중 학령기 전입 가족 지원 등 지속가능한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현재, 강화지역 20개 초등학교(분교 제외) 중 9개 학교의 학생 수가 50명 미만이며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1년간 전체 학생 수가 93명 감소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에 의원들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도·농간 문화공간 및 교육여건 등의 차이가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도시 학교들과 견줄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는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승한 의장은 “강화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이런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 있어서 의회차원의 노력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

## 강화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개최



강화군의회 임시회

할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강화군의회 의원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강화군 23개 부서 및 1개 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1월 4일에는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24일 제28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는 11월 4일까지 12일간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의원 발의 1건을 포함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은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

마지막으로, 박승한 의장은 관계 공무원들에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을 전하는 한편으로, “최근 급격한 기온변화와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발생이 우려되므로, 건강취약계층에 예방접종을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

- 최백하 기자

# 강화군, 공원 특성화 사업으로 도심공원 인프라 확대

## 사업 대상 남산공원, 관청공원, 길상공원



남산공원 음악분수

▲자연형 놀이터 2개소 ▲광장 내 음악분수 등의 시설로 인기가 높았다. 특히 야간에는 산책로 위주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어 경관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만큼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는 밤하늘’을 주제로 야간특화 경관을 오는 24년까지 조성한다.

관청공원에는 현재 공원은 ‘온가족 힐링 숲’을 테마로 강화읍 관청리 51번지 일대 82,661㎡에 풋살장, 산성놀이터, 초화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붕 없는 예술정원’을 주제로 모자이크 컬처 등 다양한 조경 작품이 오는 25년까지 설치한다. 온가족이 숲속에서 예술작품과 함께 힐링할 수 있도록 공원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계획이다.

길상공원은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길상면 온수리 82-9번지 일원에 14,354㎡에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을 24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다.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산책코스를 조성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활 속 SOC 사업에 박차를 가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들과 소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매력이 넘치는 강화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공원 특성화 사업을 오는 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군민의 수요를 반영해 더 많은 군민들이 공원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더하기 위해 공원 특성화 사업에 나섰다. 이번이다.

남산공원에는 ▲산책로 1.2km ▲자연을 닮은 쉼터 ▲운동시설 4개소

# 강화군, 외포리 종합개발 프로젝트 함상공원조성 ‘순항’

## 1,960톤급 호위함 외포항에 거치 / 외포권역 어촌뉴딜, 종합어시장과 함께 관광활성화 기대



퇴역 해군함정 외포리 접안

군은 지난 4월 해군본부로부터 ‘군수품(군함)’ 무상대여 최종 승인을 받고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함정의 안전한 거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마쳤다. 함상공원은 향후 2개월간 실내 전시 공사를 거쳐 내년 초에 개장한다. 전함 내부는 해군생활과 각종 전투장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장실, 함교, 레이더실, 76mm 함포 및 대함 미사일 등을 그대로 재현해 군함의 위용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외포리 프로젝트 종합계획’으로 통제영학당 기념 함상공원과 함께 관내 모든 수산·어업인이 참여하는 ▲‘종합어시장’을 오는 25년까지 새롭게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외포항 포토존, 바다쉼터 ▲수산물직판장 새우젓 상징 특화 ▲삼별초 역사광장 정비 ▲갈매기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외포항과 석모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5월 기공식을 갖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6일 외포리 프로젝트 사업인 함상공원 조성을 위한 퇴역함정 ‘마산함’(1,960톤급)을 외포항에 성공적으로 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치한 ‘마산함’은 30여 년간 대한민국 바다 수호의 임무를 마치고 호국의 성지인 강화도에 닻을 내렸다. 강화군의 호국·안보의 역사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해군사관학교 ‘통제영학당’을 기념하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된다.

유천호 군수는 “외포권역 함상공원과 어촌뉴딜사업, 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등의 외포리 종합개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외포리를 생태·문화·관광·레저가 공존하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 강화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개최

## 유천호 강화군수, 조업한계선 조정 및 공중보건의 배치 건의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사진제공 강화군청)

유천호 군수는 “교동도를 포함한 강화군의 많은 지역은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로 군사 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서해와 한강, 예성강이 만나는 생태계의 보고이지만 어로 활동을 할 수 없어 침체되어 왔다”며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업한계선을 현실화하고 공공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업한계선의 일률적인 설정과 인구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배치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7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10월 중 정례회의가 개최됐다.

교동면민회관에서 군수·구청장과 인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유천호 군수는 한강하구 조업한계선 현실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중보건의사 배치 등을 요청했다.

이어, 최근 쌀 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을 위해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인천시 및 군·구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은 공동건의문에 서명해 뜻을 모았으며, 공동건의문은 행정안전부, 해수부, 국방부 등 부처에 전달된다. **▶**

# 강화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군민의 행복도 UP!

## “전화 한 통, 부르시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소외계층 없는 행복한 강화! 따뜻한 복지 실현!



강화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취약계층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생활 속 불편을 전화로 이야기하면 바로 출동해 해결하고 있다.

전등, 콘센트, 환풍기, 수도꼭지, 문손잡이, 경첩, 수전 교체 등 어르신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작지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을 무상으로 수리하고 있다. 올해에만 1,334 건을 처리하며 소외계층의 믿음직한 해결사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또한, 복지 연계가 필요한 가구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주거 환경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어르신 김 모 씨는 “화장실 전등이 고장난지 오래됐지만, 불편해도 그냥 살고 있었다”며 “강화군에서 직접 나와 고쳐주고, 안부도 물어주니 너무 좋다”고 말했다.

박 모 씨는 “TV가 고장 난 줄만 알고 소리 없이 화면만 봤는데, TV도 고쳐주시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다 수도꼭지 물이 새는 것까지 처리해줬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유천호 군수는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확대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고 해결해 소외계층 없는 모두가 행복한 강화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 제70회 강화군 재향군인의 날 행사 개최

## 유천호 강화군수, “재향군인의 뜻 이어받아 풍요로운 강화군 반드시 만들겠다”



재향군인의날 기념행사(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재향군인회(회장 하재동)는 19일 제70회 강화군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를 비롯해 배준영 국회의원, 해병제2사단 부사단장,

해병5여단장, 단체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다.

안보결의에서 강화군재향군인회는 국가안보의 주역으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전후 세대에게 투철한 안보관과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하재동 회장은 기념사에서 “불안한 안보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재향군인회가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헌신하고, 애향정신으로 봉사에 앞장서며,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눠주신 덕분에 강화군이 발전해왔다”며 “재향군인의 뜻을 이어받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 모두가 풍요로운 강화군을 만들겠다.”

# 강화군,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 ‘찾아가는 네일아트샵’

## (네) 어르신, (일) 단 앞아보세요



찾아가는 네일아트샵

강화군노인복지관이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네일아트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 일환으로 경로당 어르신께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네일아트 전문강사는 다양한 색을 바르며 어르신의 손을 관리해, 기분 전환과 어르신들의 마음을 치유할 계획이다.

네일아트 참여한 어르신은 “생전 처음 손 관리를 받았다. 예쁜 손을 보고 있으니 미소가 지어지고 너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더욱 다양한 경로당 문화서비스로, 지역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며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 실시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왕근)은 지난 19일 강화읍에 거주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나눔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단 이사장 및 직원 20여 명이 연탄배달에 직접 참여해 6가구에 총 1,800장이 전달되었다.



사랑의 연탄배달(사진제공 시설관리공단)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래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공단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탄을 받은 한 주민은 “몇 해 전에도 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다 더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었는데 꾸준함을 잃지 않고 이번에도 찾아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나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곳의 군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송왕근 이사장은 “길어지는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더욱 지치고 힘든 시기에 임직원들의 작은 선행으로 우리 이웃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 이웃에게 많은 도움이 전해질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 강화군, 귀농·귀촌인 아버지 요리교실 인기

## 가족을 위한 특별한 요리선물, 아버지들의 집밥 요리 도전



귀농귀촌인 아버지 요리교실(사진제공 농업기술센터)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귀농·귀촌 중·장년층 남성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요리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받았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평소 요리가 익숙하지 않은 귀농·귀촌 중·장년 남성들과 함께 요리 초보자들도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손쉬운 가정요리법을 교육했다.

요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의 줄임말인 '요알못' 아버지 세대들을 위한 이번 특별 요리교실은 전문 요리강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가정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밑반찬, 찌개류와 같은 생활요리와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는 일품요리 2개 과정을 진행했다.

교육생 김 O 씨는 “은퇴 후 귀농이라는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가족을 위해 직접 요리를 만들어보고 싶어 교육에 참석했다”며 “밥 짓기, 주방기구 이용방법, 신선한 요리재료 선택법 등 요리의 기본부터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농촌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버지 요리교실 등 교육·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 소창체험관, 2022년 마지막 '소창으로 소풍가자!' 행사 성료

소창체험관에서 진행하는 올해 마지막 문화행사인 '10월, 소창으로 소풍가자!'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창과 각종 공예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한복 디자이너 겸 보자기 아티스트 이효재 선생님의 특별강연, 어쿠스틱 노래 공연과 마술 공연에 연꽃차, 말차 등 전통차 시음회를 곁들인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22년 6월 처음으로 개최된 소창체험관 문화행사는 첫 행사 이후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방문객들에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코로나19로 그동안 누리지 못한 문화 갈증을 해소해 나갔다.

매일 문화행사를 개최한 주간의 방문객 수가 전주 대비 20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이번 달 행사는 아이들과 청년층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별공연을 준비해 젊은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번성했던 강화도의 직물산업을 대내·외에 알리고 체험하기



'소창으로 소풍가자!' 소창체험관 문화행사(사진제공 문화관광과)

위해 조성된 소창체험관은 소창스탬프체험, 직조시연, 한복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올해 6월부터 재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소창체험관 문화행사를 통하여 문화적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이 되었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다채로운 행사로 군민 및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 강화군, 콩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 영농지원

## 농업인 일손부족 해결, 고품질 콩 생산 1석2조



농영의 기계화로 수월하게 수확을 하는 모습(강화군 사진제공)

20% 이상 증가한 220톤을 정선할 것으로 보고 관련 임대 장비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오는 11월부터는 고품질의 콩 생산을 위한 콩 선별작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기계은행 남부분점에 톤백에 담겨있는 대규모 콩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이번 기계화 지원으로 쌀 값 하락에 대비한 대체작물로 콩을 육성하면서 농촌의 일손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최근 농산물값 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은행 보유장비 중 가을철 수확기에 주로 이용되는 13종 207대에 대해 사용료 20%를 전격 인하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콩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 영농지원에 나섰다.

군은 최근 쌀 소비량의 감소와 쌀 값 폭락에 따라 벼 대체작물로 논콩 재배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재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영농 기계화를 지원해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있다.

강화군 농기계은행은 지난해 198톤의 콩을 정선했으며, 올해는

유천호 군수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발굴해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콩 정선작업은 오는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로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여야 효율적인 정선작업이 된다”고 말했다. □

문의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 ☎ 032-930-4174

# 강화군, 마늘·양파 10월 하순~11월 상순 적기 파종 당부



마늘파종(사진제공 농업기술센터)

군은 본격적인 파종 및 정식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적기 파종과 병해충 사전예방으로 월동과 품질 향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씨마늘은 파종 1~2일 전에 살균제와 살충제로 종구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야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병해충 피해가 없는 충실한 씨마늘로는 한 개의 무게는 5~7g 정도가 적당하며, 10g 이상인 경우에는 벌마늘 발생의 우려가 있어 적당하지 않다.

마늘은 적기보다 빨리 파종을 하면 벌마늘이나 통 터짐 마늘 발생이 많아지고 늦으면 월동기간에 동해를 받아 빈 포기가 발생한다. 파종 후에는 5~7cm가량 복토해 동해와 건조피해를 예방해야 하며, 한지형 마늘은 짚과 비닐을 덮어 동해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마늘과 양파의 파종 시기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으로 적기에 파종시기를 밝히고, 정식시기에 맞추어 농가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한다.

적기에 파종한 마늘과 양파는 안전하게 월동을 하고 월동 후에도 생육 재생을 도와 초기 생육을 좋게하여 수량이 더욱 많아지고 품질이 우수하다.

양파의 정식 시에는 동해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양파 포장관리는 마늘 포장관리에 준해서 관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마늘과 양파는 최근 꾸준히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작목으로 농가 현장지도 및 재배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 최백하기자

# 양사면 '기탁금 풍년'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 시행

강화군 양사면에 사랑의 기탁금이 이어짐에 따라 양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다채로운 지역복지 사업(2,560만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사람책 꾸러미 배달 사업(150만원)으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13가구에 동화책을 월 1권씩 전달했으며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800만원)을 통해 대학생 2명, 중학생 1명, 초등학교 4명에게 매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6월에는 ▲독거노인 113명에게 쌀국수를 ▲8월에는 인견잠옷 나눔 사업(100만원)으로 독거노인 30명에게 인견잠옷을 전달했다. 또한 ▲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사업(200만원)으로 장애아동 1가구에 재활치료비를 4개월에 걸쳐 지원했으며, 9월 ▲추석 밀반찬 나눔 사업(200만원)으로 50가구에 대한 건강과 생활 실태를 확인했다.

10월에는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510만원)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2가구에 지붕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아울러 11월에는 ▲찾아가는 이웃식당 사업(500만원)을 실시해 따뜻한 음식과 훈훈한 지역



양사면 기탁금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명자 양사면장은 “양사면을 위해 기탁해 주신 단체, 개인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

#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 어려운 이웃과 행복 더하기 반찬 나눔 행사 개최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송미영)는 지난 18일 어려운 이웃과 행복 더하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여성단체회원 20여 명은 아침일찍부터 밀반찬 3종을 직접 준비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130가구에 전달했다.

송미영 회장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홀로 살고 계신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잘 지내는지 걱정됐다”며 “이번 행사로 밀반찬도 나누고 건강도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1]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 반찬나눔행사(사진제공 여성단체협의회)

# 강화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단, 고구마100kg 기부

강화군 강화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단(대표 김대술)은 직접 재배한 고구마 100kg을 사회복지 시설인 강화푸드뱅크에 기부했다라고 밝혔다.

인천강화지역자활센터는 관내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9개 사업단, 160여명이 자활에 참여하고 있다.

김대술 센터장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정성들여 수확한 농작물을 기부함으로써, 스스로 일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함께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



강화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단 기부행사(사진제공 강화지역자활센터)

# 2024년까지 어촌뉴딜 300사업 16곳 추진, 소득 창출·경제 활성화 도모

## 생활 복합SOC 지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4곳 신청 준비



(2021~2023년) 3개소(강화군 초지항, 옹진군 서포리항, 중구 삼목항) 318억원, ▶4단계(2022~2024년) 3개소(강화군 외포항, 옹진군 두무진항, 중구 덕교항) 389억원 등 모두 16개소(1,642억원)가 선정돼 사업을 마쳤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기본계획 수립 및 해양수산부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에 착공해 2024년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어촌뉴딜 300사업의 후속사업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모로 추진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낙후된 어촌의 경제·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는 등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생활 복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4년까지 강화군, 옹진군, 중구의 어촌지역 16개소에 총 사업비 1,642억원 규모의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낙후된 항·포구에 선착장, 방파제 등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해 어촌·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항·포구 주변에 관광객을 유인하는 탐방로, 소공원 등을 설치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장 등을 건축해 어촌주민 소득을 창출하여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공모에서 ▶1단계(2019~2021년) 5개소(강화군 후포항, 옹진군 야달항, 답동항, 대·소이작항, 중구 소무의항) 456억원, ▶2단계(2020~2022년) 5개소(강화군 창후항, 황산도항, 옹진군 장춘, 자월2리항, 서구 세어도항) 479억원, ▶3단계

해양수산부는 2023년 사업대상지로 전국 60개소(유형① 5개소, 유형② 35개소, 유형③ 20개소)를 내년 1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어촌지역 주민과 수협, 군·구와 사전 협의를 통해 4개소(강화군 1, 옹진군 2, 중구 1)를 사업대상지로 발굴했으며, 사업 계획 수립 등 공모사업 신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2024년까지 어촌뉴딜 300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도 반드시 선정돼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도록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 강화 주문~아차도 연결하는 주문연도교, 2026년 준공 추진

## 길이 550m, 2차선 연도교 ... 총 사업비 300억 원 투입



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이전까지 답보 상태였다.

그러자 지난 2021년 말 인천시는 연도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눠, 1단계 주문도~아차도를 연결하는 주문연도교는 지방비(300억 원)로 충당하고, 아차도~불음도를 연결하는 불음연도교는 국비(440억 원)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주문연도교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인천시는 올해 제1회 추경에 설계 용역비 등 10억 원을 편성해 강화군에 교부한 상태다. 올 연말부터 실시설계와 2023년 착공을 거쳐, 2026년 준공이 목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주문연도교 건설사업이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올 연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문도와 아차도를 잇는 길이 550m, 2차선의 교량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300억 원(시비 150억 원, 군비 150억 원)이 투입된다.

그 간 2018년도 서도연도교 건설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

더불어, 2단계인 불음연도교 건설은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섬의 연도교 건설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섬 발전 촉진법 등을 기반으로 추진한 사업이어서 경제적 효용만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인천 섬에 대한 가치 재평가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섬 개발·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송기훈 기자

# 강화군 새마을회, 직접 담근 고추장으로 사랑 나눠요



저소득층을 위한 고추장담그기 행사(강화군 새마을회 사진제공)

강화군 새마을회(회장 조인술)·새마을부녀회(회장 이임순)는 28일 읍·면 남녀 새마을회장과 임원들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직접 담근 고추장은 관내 저소득층 800가구에 전달했다.  
조인술 회장은 “오늘 사랑으로 담근 고추장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

에게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나눔 행사를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새마을회의 나눔 실천이 강화군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새마을회 회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

#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김장담그기



저소득층을 위해 다문화 가족과 함께한 김치담그기 행사(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사진제공)



저소득층을 위해 다문화 가족과 함께한 김치담그기 행사(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사진제공)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회장 임인관)는 28일 관내 김치제조업체인 ‘강화섬김치’에서 회원 및 다문화가정이 50여 명이 모여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담근 김장김치 270포기는 관내 독거 어르신, 차상위계층 등에게 회원들이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임인관 회장은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 김치가 만들어지듯 다문화

가족도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감, 소통,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나눔의 참 의미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바르게살기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살기 좋고 정이 넘치는 강화군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1**

- 송기훈 기자



강화농업 알리기\_농업기술센터

삼산면 고구마캐기



자유총연맹 캠페인

#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북방식 고인돌



강화 부근리 고인돌

1964년 사적 제137호로 지정된 부근리 고인돌은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고창 지석묘군(사적 제391), 화순 고인돌(사적 제410호), 강화의 지석묘(사적 제137호)는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거석(巨石)문화를 대표하는 유적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무덤 역할을 하기 위해 세워진 석제 구조물이다. 동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도 건설되었다고 추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전국에 걸쳐 분포해 있다.

고인돌은 ‘괴어서 만든 돌’이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지석묘라고 불린다.

고인돌은 무게가 수십 톤 이상인 덮개돌을 채석하여 운반하고 무덤에 설치하기까지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당시 지배층의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상징하는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유적이라 볼 수 있다.

강화군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하점면과 양사면으로 이 일대에는 40여 기의 고인돌이 있다. 부근리 일대에는 이 밖에도 탁자식 고인돌과 바둑판식 고인돌이 여러 기 남아 있다.

부근리 고인돌은 화강암 재질로 경기 중부지방에서 보기 드문 탁자식(북방식)으로 길이 7.1m, 너비 5.5m의 뚜껑돌을 꺾돌 2매가 받치고 있다. 또한 높이는 2.6m에 달한다.

뚜껑돌은 무게가 50여톤에 이른다. 보통 북방식 고인돌은 꺾돌이 4매로 이루어져 있지만 부근리 고인돌은 꺾돌 2매가 없다. 이는 과거에 없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강화도에 분포한 고인돌들은 고려산·별립산·봉천산 등 산지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산 경사면에 군집을 이루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같은 특징들은 고인돌 초기의 형태로 고창 고인돌은 B.C. 7세

기, 화순 고인돌은 B.C. 6세기~5세기경으로 추측되며, 강화는 이보다 더 빠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은 아직 발굴조사를 하지 않아 고인돌과 관련된 유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인근에 있는 하점면 삼거리 유적에서 탁자식 고인돌 무덤 5기를 발굴하여 돌방[석실(石室)]안에서 민무늬토기 조각, 간돌칼[마제석검(磨製石劍)], 돌가락바퀴[방추차(紡錘車)], 달도끼[환상석부(環狀石斧)] 조각 등이 나온 적이 있고 고인돌 언저리에서 빗살무늬토기들이 여러 점 나온 것이 있다.

따라서 부근리 고인돌에도 삼거리 유적과 비슷한 유물들이 들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강화 부근리 지석묘는 주변의 여러 고인돌과 함께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경남 김해시 고인돌은 길이 10m, 너비 4.5m, 높이 3.5m에 무게는 무려 350t에 이른다. 이 고인돌은 무덤방 위에 바로 뚜껑을 덮은 개석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관리 소홀로 고인돌 원형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붕없는 박물관 강화군에서는 부근리 고인돌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고 청동기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또한 올해 강화 고인돌 선사체험을 재개했다. 인류의 자산인 세계유산을 바람직하게 관리·보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최백하 기자



강화 고인돌 선사체험

기고

# 군민의 안전을 위한 “지능형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 똑똑해진 CCTV, 강화군민 안전 책임진다 / 방법+재난+무단투기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 자 균  
안전총괄과  
재난관리담당

2016년 4월 개소한 강화군 통합관제센터는 2022년 10월 현재 7명씩 전문관제사가 3개 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지역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해마다 다양한 목적의 CCTV가 빠르게 증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의 목격자 및 사고 전파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제 센터는 인력부족으로 업무성과와 관제효율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CCTV관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 ■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로봇이 주문을 받고 초연결로 재택근무를 하는 “급속하게 변하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 중이다.

그중에서도 요즘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4차산업혁명기술이라 일컫는 사물인터넷과 AI관련 기술이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나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각각의 사물들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CCTV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강화군도 스스로 예방하고·탐지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육안관제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의 안전을 더 촘촘히 챙길 계획이다.

### ■ 지능형 시스템 필요성

강화군은 인구감소지역(2021. 10. / 행정안전부)으로 지정되는 등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고, 만성질환, 치매 어르신 등의 안전 확보와 생명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범죄취약지역이 많고, 면적이 넓어 사실상 치안·방법에 취약한 구조이며, 월북·대북전단·쌀보내기 등 접경지역으로서 특수성이 존재한다.

강화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1,400대가 넘는 많은 공공 CCTV가 운영 중이나 모니터링 등 예방관제 또는 이상 징후에 따른 신속대처가 어렵고, 사후 수사자료 제공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사실상 육안관제 한계를 극복하는 지능형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구분	주요내용
영상분석	지능형 기반의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사람, 차량, 동물 등의 객체를 분리하고 움직임 분석
선별관제	사람, 차량 등 이상 행동만을 감지 관제용원 모니터 화면에 표출
이상동작	실시간 CCTV 영상 속 이상 동작(침입, 쓰러짐 등)을 분리화면에 표출
영상검색	영상정보 검색 및 이동경로 파악(성별, 옷 색상, 차량, 가방 등)

▲ 지능형 시스템의 주요기능

### ■ 지능형 통합관제 플랫폼이 해결책이 되다

CCTV는 최근 AI 등과 같은 신기술과 융합되면서 단순 행동 감

지에서 벗어나 객체의 움직임 추적해 행위를 판단하는 즉, 사람의 두뇌 역할을 대신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치매노인 및 미귀가자, 기절(쓰러짐)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재난안전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다.

지능형 시스템은 사건·사고 등의 원인을 찾는 도구로써 사용될 뿐 아니라, CCTV가 스스로 탐지하고 선별하며, 분석하여 알려주는 예방적 기능도 가능하다.

또한 적은 인력으로 관제 본래의 기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등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탁월하다. 1

# 축 축 축



이근향

어느 9월의 마지막 날에  
찬란한 결혼식이 열렸네  
어느 멋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신비스러운 어느 동화속의 모습같이  
코로나19도 결혼식을 막지 못하지

신부는 동화속의 공주님처럼 아름답고  
신랑은 전설속 멋진 왕자님이네

동네사람들이 결혼식을 보려고  
구름처럼 몰렸 들었네  
동네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네  
신랑신부가 서로 닮았다고  
신랑신부가 선남선녀라고  
종달새도 째째거리며 결혼식을 축하하네

주례선생님의 주례사도 촌철살인이네  
해로동혈하라고

신랑신부도 서로 다짐하네  
죽음이 우릴 갈라놓을 때까지  
행복하게 하나되어 살겠농라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먼 훗날에  
그 결혼식이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신랑신부는 추억을 백지위에 그리고 있겠지

### 이근향 주요학력 및 주요경력

- 1967.07.20. 출생
- 1987.03.0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입학
- 1993.02.2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94.07.18. 한화투자증권(주) 입사(구 국민투자신탁(주))
- 2004.08.06. 한화투자증권(주) 퇴사
- 2010.08.10. 현재 김은중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



# 강화군, 한의사와 함께하는 한의학 건강교실 운영



한의학 건강교실



한의학 건강교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6일부터 ‘한의사와 함께하는 한의학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0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 ▲ 다가오는 김장철 무릎건강 지키기 ▲ 먹고싶은 음식을 못 먹는 무서운 병, 당뇨
  - ▲ 어리석어지는 병 치매, 지혜롭게 예방하기 ▲ 뇌졸중, 알아야 큰 화를 면한다 등이다.
- 또한 강의 후에는 한의사가 개인별 건강 문제를 상담해주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문의 ▶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930-4038

## 더 나은 인쇄 · 광고로 보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삼성인쇄광고기획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웹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책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